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라 성경: 시편 27편 4-10절

Tag:

4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와 그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5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6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7 여호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8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9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지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10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시 27:4-10)

다윗에게는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한가지가 있었다. 사실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로 표현한 이유가 있다. 다른 기도의 제목들도 모두 소중하겠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제목, 마음 속 깊은 곳, 영혼의 갈망으로 결코 빠뜨리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딱 한가지라는 의미다.

그것은 여호와와 그의 집에 거하는 것이다. 주의 장막에서 지내는 것이다.

다윗은 레위인도, 제사장도 아니었다. 그는 레위인으로서가 아닌, 제사

장으로로서가 아닌, 단순한 주의 백성으로서 여호와와 집을 사모하였다. 사실은 이런 영적인 태도가 다윗의 모든 것을 설명한다. 왜 다윗이 항상 승리할 수 있었는지, 왜 다윗이 정의롭고 선한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했는지, 왜 다윗이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지를 잘 대변한다. 왜 경건한 자가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왜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큰 복을 주시는지를 체험해야 한다.

다윗은 실제로도 잃어버린 법궤를 되찾는데 열정을 쏟아 부었으며, 스스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비로 사들여 법궤를 안치시키고 예배를 위해서 다윗의 장막을 지었으며,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해서 이전의 규모와는 다른 조직적인 찬양대를 구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열정적이었고, 또 솔로몬이 감당해야 할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건축자재를 구비하였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한 평생을 살았고, 그로 인해서 큰 복을 받게 되었다.

다윗은 왜 이토록 여호와와 집을 사모하게 되었을까? 시편에 다윗이 기록한 시들을 분석해 볼 때 그에게는 남다른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다윗은 아마도 어머니와 함께 생활했고, 아버지의 집에는 거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는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형들과 함께 거하기를 기대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어찌된 영문인지, 들판에 따로 거하며 양떼를 지키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틈틈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였으며, 그 심부름은 주로 형들을 돕는다는지, 잔심부름이 전부였다. 그래도 다윗은 그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해 냈으며, 사실 그 정도의 일은 당시에 일상 다반사였던 것 같다.

아마 의도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다윗은 배다른 동생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머니를 따라 본가와와는 다른 곳에서 생활했던 것 같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그는 아버지가 있는 집을 사모하던 것이 후일에는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는 것으로 대치되었다고 유추해 볼 수 있겠다.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시며, 그의 성전은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할 집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그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 모든 영혼의 간절한 소망이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는 이유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즉,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는 체험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원했기 때문이다.

성경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우리로서는 다만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이다. 다윗이 행한 모든 일들을 미루어 짐작할 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함으로써 인해서 변화된 일들은 실로 엄청났다.

다윗의 이야기를 더듬어 가보면 아마 그가 철들었을 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는 것을 계기로 특별한 영적 체험,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경험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것은 아마도 찬양대가 찬양하는 중에 일어난 경험이었을 가능성도 크다.

그 후 그는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읊조리는 것을 낙으로 삼았고, 그로 인해서 시편을 짓는 재능이 탁월하게 발달한 것 같다.

아무튼 이런 다윗의 영적 경험은 다양한 면으로 발달하게 되었고,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함께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전쟁 영웅이 되었고, 여러 가지 궁중 암투를 통해서 처세술들을 익히는 것으로 발달하였으리라 볼 수 있다.

세상은 그를 편히 쉬면서 살아가도록 방치하지 않았으며, 그는 자신이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사건에 휘둘리면서 점점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한 것 같다.

5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5절 말씀은 바로 이런 자신의 사정과 심정을 신앙고백으로 노래하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다윗을 지켜주던 곳은 여호와의 집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한숨을 돌렸고, 아무도 그가 그곳에 있을 것이라 짐작하는 자들은 없어서 유일한 피난처, 숨는 곳이 되었고, 하나님의 품은 안전한 요새가 되었다.

특히 사울의 창끝을 피해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을 때 그는 여호와의 집에 숨어 있다가 진설병을 먹고 기운을 차리고, 그곳에 있는 골리앗의 칼을 집어들고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한 일도 있다.

여기 저기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도, 그는 여호와의 집을 상상하며 요새와 같고 등지와도 같은 곳곳의 은닉처에 자신을 숨기면서 과거에 여호와의 집에서 가졌던 안식을 추억하였을 것이다. 그는 아무리 험준한 상황에서도 모든 은닉처를 여호와의 집으로 삼는 믿음을 개발한 것이다.

6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싸우는 법을 아는 장수였다. 그는 오직 승리만을 노리고, 승리만을 위해 싸우는 전략가였다. 전쟁터에서만이 아니라, 궁중에서의 암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이토록 이기는 전쟁을 하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추억 때문이다. 그는 여호와의 집에 찾아갈 수 없을 때에라도 항상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였다. 항상 받은 은혜를 추억하며 하나님이 바로 곁에 계심을 경험하였다.

사람은 어려움에 처할 때 아버지와의 좋은 기억 한가지로 위기를 버틴다고 한다. 다윗에게 있어서의 아버지와의 좋은 기억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10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는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실제로 다윗이 10년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그의 아버지와 식구들은 다윗을 외면하였다. 그들도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성경 그 어디에도 다윗 어머니에 대한 에피소드가 없으므로 우리는 그녀가 오래전에 사별했는지, 아니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머니와 헤어졌는지 했을 것이다.

배다른 형제는 다윗을 하대했고, 눈치쟁이 아버지 또한 온전히 다윗 편에 선 적이 없다. 여러 아내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와도 영적인 교감을 했다는 기록이 없고, 밧세바는 어찌보면 전형적인 갑질 중전이었고, 아들들도 여전히 각기 다른 어머니가 있어서 궁중 암투의 대상이나 마찬가지였고, 실제로 아들들끼리의 치정극으로 가정은 파탄났고, 두명의 아들은 실제로 반역을 도모하다 죽임을 당한다.

어찌보면 피할 수 없는 다윗 자신의 흑역사가 아닐 수 없다. 위대한 왕이었으나, 가정사는 처참했다.

그래서 10절의 고백이 이해된다. 오직 그를 이해하는 분은 한분 하나님 밖에 없었다. 그가 그토록 마음 깊은 곳에서 여호와와 집을 사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는 다윗에게 여호와와 집은 유일한 피난처가 되었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현실적으로.

7 여호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여호와와 집에 대한 추억은 그가 곤경에 처했을 때 부르짖는 기도로, 시를 지어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는 어디서든지 여호와와 집을 그리워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모

든 위기를 모면했다.

8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다. 이것은 영적인 능력이기도 하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 어떤 사람은 아무런 감각도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훈련을 해야 한다. 주의 얼굴을 찾으려 하고, 주의 임재를 느끼려 하라.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

9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
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때로는 주께서 나를 의도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를 내고 계시는 중이신가 불안할 때가 있다.

내가 했던 언행 가운데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이 있는가?

내가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린 것은 없는지, 나로 인해 누군가 손해본 일은 없는지, 내가 말을 함부로 해서 상처받은 사람은 없는지 돌이켜보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이 개인주의에 취해있다. 자기가 손해보는 일, 자기가 기분 상하는 일, 내 자식이 무시당하는 일, 심지어 내 자식이 잘못했을지언정 아직 어리고, 과잉행동장애가 있을 뿐, 심성이 나쁜 아이는 아니기 때문에 담임선생님의 세심한 배려와 보살핌이 필요한데, 기분대로 함부로 대하는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왜 선생님이 오은영 같지 않은지 좀 더 배워야 한다고... 그러지 말고, 회개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아이에게 회개를 가르쳐야 한다.

회개할 줄 모르는 자가 얼마나 마귀에게 노략당하게 되는지 이번 서이초 교사의 자살 사건으로 잘 드러나고 있다.

교권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그 전에 모든 학

부모는 특히 모든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는 악한 개인주의를 버리고 겸손한 시민이 되어 회개하고 반성할 줄 아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시고, 그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그 가정에서 은총을 거두지 않으신다. 세심하게 하나님의 안색을 살피는 자가 복을 받는다. 주일마다 성전을 찾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을 세심히 살피고 반성하고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고, 다시금 새사람이 되어 세상에 나갈 때 승리하는 경건한 성도가 된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